

 금융위원회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	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책 임 자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1.3.31.(수)	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감독제도팀장 권 주 성(02-2100-2591) 금융위원회 지배구조팀장 박 진 애(02-2100-2520)	담 당 자	박 보 란 사무관 (02-2100-2593)
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제 목 :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 취지 및 주요 규제내용 등에 대해 추가로 설명드립니다.



- ☐ 「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」 사전예고(4.1~)와 관련하여,
언론에서 보도된 사항 및 추가질의 등에 대해 설명드립니다.

[주요질의]

- ① 삼성, 현대차 등이 감독대상이 되는 것인지?
- ② 카카오,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기업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대상이 되는지?
- ③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이 존재하는데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을 추가로 실시하는 것은 이중규제 아닌지?
- ④ 소속 금융회사 간 내부거래를 금융당국이 상시적으로 들여다 보고, 나아가 제재까지 하게 되는 것인지?
- ⑤ 자본 추가적립 및 보유주식 매각 등의 조치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,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닌지?

[별첨]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 관련 주요QA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 공공누리 공공지작물 자유이용허락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합평관리청 콜센터
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1.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시행되면 삼성, 현대차 등이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인지?

□ 삼성, 현대차 등이 직접적인 감독대상이 되는 것이 아님.

○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적용대상은,
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회사임

□ 다만,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 출자구조 및 내부거래 등 전체 그룹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,

○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비율 산정시 그룹위험 가산, 대표 금융회사를 통한 공시 등이 적용되는 것임

2. 카카오,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기업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대상이 되는지?

□ 빅테크 기업 역시 법령의 지정요건*을 충족하면,
감독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음

* ① 여수신·보험·금투업 중 2개 이상의 업을 영위하면서
②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되, 비주력 금융업종 5조원 미만시 제외

□ 다만, 카카오와 네이버의 경우 현재 자산규모, 영위업종 등에서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음*

* [카카오] 비주력업종(금융투자업)이 0.1조원으로 기준금액 5조원에 미달
[네이버] 여수신, 보험, 금투업을 모두 영위하지 않음

3.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이 존재하는데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을 추가로 실시하는 것은 이중규제 아닌지?

- ☐ 개별 업권별 감독이 규제하지 못하는 “그룹위험”(계열사 간 전이 위험, 자본의 중복이용 등)을 감독하려는 것으로,
 - 제도의 취지와 규제내용이 다른 만큼 이중규제라 보기 어렵고, 국제적으로도 이미 도입된 감독제도*임

* Joint Forum(금융그룹감독원칙, '96~), EU FICOD(금융그룹감독지침, '05~) 등

4. 소속 금융회사 간 내부거래를 금융당국이 상시적으로 들여다 보고, 나아가 제재까지 하게 되는 것인지?

- ☐ 금융회사 간 개별적, 일상적 내부거래를
금융당국이 직접,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고 감독하려는 것이 아님
- ☐ 금융회사 스스로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내부거래를 자율적, 내부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고
 - 이를 투명하게 외부에 공시함으로써 시장의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임
- ☐ 다만, 다른 금융관계법령과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의 검사 등을 통해 법령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

5. 자본 추가적립 및 보유주식 매각 등의 조치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,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닌지?

- 금변 자본비율 규제로 금융그룹에 일정부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나,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 판단함
 -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비율에 대해 다양한 가정을 전제로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,
 - 현재로서는 추가적립이나 보유주식 매각이 필요할 정도로 자본비율이 모자란 상황은 아님
 - 다만, 비율준수 과정에서 자산운용시 제약요인 발생, 시장의 평가부담 등 간접적 규제 효과 발생